

철학사

65 존 듀이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저)

존 듀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미국 실용주의 전반과 특히 윌리엄 제임스에 대해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과 제임스의 실용주의 사이에 몇 가지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존 듀이에게서는 이러한 유사점을 더욱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데카르트와 기초주의를 거부하고, 존 로크에게서 볼 수 있는 인위적이고 추상적인 경험관보다는 구체적인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개별 사건들이 하나의 전체 과정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유기적 모델이 실용주의와 화이트헤드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전통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용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방법론적 자연주의입니다.

찰스 샌더스 피어스가 시작한 이론,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그의 유인물과 신념의 고정 개념을 떠올려 보세요. 윌리엄 제임스 역시 실용주의를 철학적 논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언급하며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본질적으로는 이론의 경험적 결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실제로 나타나는가? 즉, 가설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여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피어스가 제시했던 과학적 방법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그것을 철학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학이 구체적인 경험에 의미가 있는 것,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한정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임스는 '급진적 경험주의'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급진적 경험주의. 요점은 존 로크가 충분히 급진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급진적 경험주의에서 그는 실용주의적 의미 이론을 바탕으로 사고합니다

의미 있는 논쟁은 오직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논쟁뿐이다. 이것이 실용주의적 의미론이다. 따라서 그는 기저나 실체, 정신, 물질 등과 관련된 어떤 문제도 논의하기를 거부한다.

그것은 경험과 무관하며, 아무런 차이도 만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형이상학적 양태론 대 형이상학적 다원론, 유물론 대 관념론에 대한

논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 그러다 보면 철학의 이론적 쟁점 전체가 버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진적 경험주의의 의미 이론이 바로 그런 맥락에 있습니다. 제 대학원 교수님 중 한 분이 세미나를 소개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실용주의와 실증주의는 둘 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고, 둘 다 막다른 길이라고 하셨죠. 둘 다 의미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실용주의적 의미 이론과 나중에 살펴볼 실증주의적 의미 이론은 정신적으로 의미 있는 것, 인지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검증 가능한 특정 종류의 경험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제한합니다. 제임스의 경우, 이것이 바로 급진적 실용주의입니다.

실증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에이어가 형이상학의 제거라고 부른 것입니다. 실증주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에이어의 해당 제목의 장을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임스는 그 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경험적 결과를 찾고, 경험적 결과를 통해 검증하려는 이러한 경향은 그의 에세이 「믿으려는 의지」(The Will to Believe)에서 드러나는데, 이 에세이는 예를 들어 『종교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제임스는 W.K. 클리포드의 「믿음의 윤리」(The Ethics of Belief)라는 이전 학자의 글에 대한 응답으로 이 글을 썼다. 클리포드는 만약 어떤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 즉 논증의 무게가 충분하지 않다면, 결정을 내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무책임한 일이며, 판단 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로크의 증거주의적 관점이 있죠. 믿음의 정도를 증거에 비례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 만약 어느 한쪽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다른 쪽보다 더 크지 않다면, 그것은 중요한 사실이므로 동의를 보류해야 한다는 거죠.

윌리엄 제임스는 그의 저서 『믿으려는 의지』에서 동의를 보류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강요되는 중대한 선택과 결정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주의적 요구가 없다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이해되지요 ? 제임스의 요점은 두 믿음이 구체적인 경험에 미치는 결과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심리학적 배경을 가진 제임스에게 있어 이는 심리적 안녕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지요 ? 따라서 한 믿음이 다른 믿음보다 심리적으로 더 많은 것을 약속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믿으려는 의지를 행사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이해 되시죠? 자발적인 동의 말입니다.

그 글은 존 로크의 증거주의적 요구를 반박하는 고전적인 사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제 생각에 앨빈

플랜팅가와 같은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스코틀랜드 실재론자들의 주장인데, 그들은 증거주의적 요구에 대해 “나는 그것을 믿을 만한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증거주의적 요구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어떤 믿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억누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글에서 그의 방법론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에세이에서 강인한 마음을 가진 철학자와 온화한 마음을 가진 철학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심리적인 차이 때문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경험의 금전적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심리적인 차이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냉철한 철학자들도 어떤 것들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경험주의, 결정론 등을 받아들일 겁니다. 마음이 여린 철학자들은 다른 것들을 믿을 겁니다. 믿음의 전체적인 개인적 맥락이 중요한 거죠.

상대주의적인 것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신념의 심리학을 살펴보면 개인의 성격이 신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칸트의 방대한 비판서, 여러분 중 일부가 매료된 그 책이 과연 캘리포니아 히피에 의해 쓰일 수 있었을지 궁금하네요. 사실 그 책은 삶이 너무나 체계적이어서 이웃들이 그가 대학에 걸어가던 시간에 맞춰 시계를 맞출 정도였던 프로이센 출신의 독신남이 쓴 것이거든요.

캘리포니아의 느긋한 생활 방식으로는 그런 종류의 작품을 만들어낼 리가 없죠. 내년엔 제 친구 스튜 해킷과 함께 칸트 세미나를 수강하는 분들은 그의 심리적 특성과 『푸라이젠 비판』 사이에 유사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스튜, 그는 정말 체계적인 사람이거든요.

몇 년 전 힌두 철학을 공부하러 인도에 갔을 때, 그는 너무 꼼꼼하고 세심한 나머지 그들의 체계가 너무 무질서해서 거의 신경쇠약에 걸릴 뻔했습니다. 심리학과 성격의 관계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러한 심리적 의존성을 극복하려면 보다 보편적인 기준점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정한 유형의 인간 본성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 본성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군요. 상대적인 것의 반대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사람의 믿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많습니다.

그중 일부는 개성이 강하거나 성격 유형이 다르고, 일부는 문화적인 요인이며, 또 일부는 인간 본연의 특성입니다.

상대적인 것을 넘어 보편적인 것에 도달하려면, 인간 본연의 특성, 즉 인간 본연의 모습에 부합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마음은 불안하다"라고 말하며 그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맥락은 실존주의, 특히 일부 실존주의와도 유사점을 보입니다. 실천의 우선성은 객관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인간의 주관성, 즉 전인격, 내면성까지 포괄합니다.

특히 제임스에게서 그 점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음, 제임스가 하는 일을 설명하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제 듀이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듀이가 1859년에 태어나 1952년에 사망했다고 하면 꽤 최근 인물 처럼 들리죠. 1952년,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을 넘어서 사망한 인물은 그가 처음인 것 같네요.

듀이는 실용주의, 즉 철학적 문제들을 비롯한 여러 질문들을 다루는 방법론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제가 '진화적 자연주의' 라고 부르고 싶은 사상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철학적 자연주의자입니다. 모든 것은 물리적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옹호하는 자연주의는 다윈의 자연선택론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의 진화적 자연주의는 그가 철학적으로 출발했던 진화적 이상주의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역사적 과정이 전개되면서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생명체가 점점 더 복잡한 형태로 진화하고 구체적인 경험이 나타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의 진화적 자연주의에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들을 통해 그의 철학적 저술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들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그 모든 질문들을 꽤 잘 다루고 있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그의 저서 『재건 시대의 정의』에서 그 모든 질문들을 다루고 있죠. 우선 그의 경험 개념은 존 로크의 경험 개념보다는 화이트헤드와 제임스의 개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 제임스, 듀이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험에는 정서적 경험, 즉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이 포함됩니다. 화이트헤드와 제임스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회적, 문화적 경험도 포함됩니다. 그의 책을 읽다 보면, 철학 형성에 영향을 미친 모든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지식사회학 분야의 저술가들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궁금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화이트헤드가 자연과학이 철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듀이는 사회 변화가 철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떠올리든, 데카르트가 묘사한 난로로 데워진 방과는 얼마나 다른지 주목해 보세요. 그 방은 외부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공간입니다. 난로로 데워진 방은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고립된 개인과 그의 마음속 사생활, 역사적이든 그 무엇이든 모든 외부 영향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에서 너무 추상적으로 접근하는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경험이란 아주 광범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는 유동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동적인 경험. 마치 끊임없이 흐르는 과정 같아서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유동적이죠. 듀이의 책을 처음 읽고 유동적 경험이라는 개념을 접했을 때를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몰던 46년식 닷지에는 당시 '유동식 드라이브'라고 불리던 기능이 있었어요.

유체 구동 방식이 뭐였더라? 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동 변속기로 가는 한 단계였던 것 같아. 변속이 너무 부드러워서 기어를 바꾸는 걸 거의 의식하지 못할 정도였거든. 물론 여전히 수동으로 변속했지만 말이야. 유체 구동 방식. 한 순간이나 상황에서 다른 순간이나 상황으로 넘어가는 걸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이지.

하나가 다른 하나로 이어진다. 유동적인 추진력. 듀이에게 유동적인 경험.

하지만 유동적인 경험, 즉 습관, 습관적인 행동, 습관적인 반응의 산물인 경험은 듀이가 문제 상황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 방해받습니다. 문제 상황. 그리고 오직 문제 상황만이 사고를 자극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능, 즉 지성의 역할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살아가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운전할 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시나요? 시애틀에서 운전하던 때가 생각나네요.

시애틀에서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상에 정지 표지판이 있는 아주 가파른 언덕들이 많아요. 샌프란시스코 일부 지역에서 운전하는 것만큼이나 힘들죠. 마치 빙글빙글 돌아가는 언덕 사진들처럼요 .

아시다시피, 꼭대기에 정지 표지판이 있는 직선형 오르막길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처럼 평평한 시골길에서 운전하며 자란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곤란한 상황이 생기죠.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보다가, 제가 가끔씩 하는 것처럼 비상 브레이크를 당기고 클러치를 밟아 기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 브레이크를 서서히 풀면서, 정상을 넘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가속 페달을 밟기를 바라는 거죠. 요점은 유동적인 경험은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 상황에 의해 중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죠.

내가 뭘 할지 알겠어. 자, 그렇게 해보자. 이게 바로 실험적 사고 방식이야.

위해 아이디어를 실험하면서 생각합니다 . 만약 당신이 변증법적 상황을 찾는 것을 좋아한다면, 문제 상황 자체가 변증법적 상황입니다. 정, 반, 그리고 합이 존재하죠.

정반합은 문제 상황이나 위협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유동적인 경험을 의미 합니다 . 정반합. 그리고 올바른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찾아야 할 것은 정반합의 핵심을 수용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종합입니다 .

종합은 다음 단계의 명제가 됩니다. 따라서 변증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능이란 습관적인 경험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이며 , 이는 그의 기능주의 심리학으로 이어집니다.

기능주의 심리학은 간단히 말해 우리의 모든 정신 과정, 심리적 과정은 신체적 욕구, 즉 생물학적 욕구의 기능이라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욕구는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 속의 무언가에 반응하려는 유기체의 생물학적 기능입니다. 이성은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숙고하는 유기체의 발달된 기능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문제 상황에 대해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욕구를 수정하는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저것을 보고 또 보고 또 보세요. 성장은 고정된 목표를 향한 꾸준한 움직임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들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 자체가 자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능주의 심리학입니다.

예를 들어 83~86페이지, 특히 초반 5~6페이지에서 그가 우리가 지성보다는 욕망의 존재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보면 그 점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기능주의 심리학이죠. 자, 바로 거기서 경험과 심리학, 그리고 그의 자연선택론이라는 개념이 이 모든 것의 근저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장에서 그는 종의 불변성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데, 이는 종의 불변성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정된 형상, 고정된 본질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종의 불변성이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의 연속이라는 그의 주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실재하는 보편자를 거부하며, 실재하는 보편자를 거부함으로써 고정된 형태의 내재적 목적 원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탈로스. 윤리든 그 어떤 것이든 추구해야 할 정해진 목표는 없다. 사고의 고정된 법칙도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며, 사고의 법칙은 그러한 적응에 성공적임이 입증된 도구로서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그의 요점은 철학은 순수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학은 실천적인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맥락으로 되돌아갑니다. 구체적인 경험이 그 전체의 토대가 되며, 이론 그 자체를 위한 이론이 아닙니다. 네, 저는 이 세 가지 개념이 듀이 사상의 이론적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하지만, 그의 사상의 핵심은 이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식론, 심리철학 등과 관련된 하위 가설들을 도출해내는 거대한 가설이며, 듀이는 이러한 가설들이 실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응용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요. 하나씩 쪽 훑어보죠.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미 그가 실험적 사고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으니, 왜 그런지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간단히 말해 과학적 방법을 모든 것에 적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인식론의 자연화 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여러분은 자연주의적 인식론에 관한 책과 철학 논문들을 접해왔을 것입니다. 자연주의적 인식론이라는 개념은 존 듀이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규범적 인식론이 아니라, 탐구의 본질을 그 자연스러운 환경, 즉 구체적인 경험의 실제적인 요구 속에서 기술하는 인식론을 원했습니다. 자연주의적 인식론이란 자연선택 이론에 따라 탐구가 작동하는 방식을 기술하는 인식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적 관점이 그의 연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그는 과학 개념에 대한 조작주의적 관점을 매우 명확하게 수용했습니다. 1925년 하버드 물리학자 퍼시 브리지먼은 『물리학의 논리』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조작주의적 관점을 발전시켰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암시했던 바는 있었지만, 브리지먼이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켰고, 듀이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작주의란 간단히 말해서 과학에서 이론적 개념의 의미는 특정 조작을 수행했을 때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견해입니다. 즉, 조작적 의미, 조작적 정의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사람들은 이론, 제안, 교육 이론, 교육과정 아이디어 등을 내놓곤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조작적으로 구현 하느냐 는 겁니다. 정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후보자가 훌륭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누군가 "이걸 어떻게 실행에 옮길 건가요?"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윌리엄 제임스의 실용주의적 의미론이 작용합니다. 이론적 개념의 의미를 알고 싶다면, 그 개념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즉 실행에 옮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따라서 조작주의는 실용주의적 의미론을 과학철학에 적용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시는 광물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모어 경도계, 즉 광물 의 경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모어 경도계는 적어도 한 광물의 상대적인 경도를 다른 광물과 비교하여 알려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모어 경도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두 광물을 서로 문질러서 자국을 남기는 광물이 자국이 남지 않은 광물보다 당연히 더 단단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도란 무엇일까요? 상대적인 긁힘 방지 능력입니다. 이것이 경도의 조작적 정의입니다.

경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 경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단단함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단단함 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정 작업을 수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나타냅니다 . 따라서 조작주의는 과학 철학의 한 분야이며, 이는 분명히 과학에 대한 도구주의적 관점과 유사합니다.

도구주의는 과학이 현실의 본질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더 깊이 탐구 하거나 과학의 응용 분야를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뿐이라는 관점입니다. 자, 이제 과학 전공자들에게 왜 과학을 전공하는지, 왜 과학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려 하는지 물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라고 대답할 겁니다 .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학, 공학, 환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과학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과학 이론은 현실의 본질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과학 이론은 응용 과학이라는 분야에 유용한 도구일 뿐입니다.

자, 이제 이론과 실천의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론과 실천. 어떤 사람들은 인문학 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때 , 마치 교육이 순전히 도구적인 가치만 지니고 있고, 사물의 진정한 본질, 인간이란 무엇인가, 현실의 본질은 무엇인가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구주의는 과학에서 반실재론의 한 형태로 여겨집니다. 과학적 실재론은 과학이 우리에게 현실에 대해 알려준다는 견해이고, 과학적 반실재론은 과학이 우리에게 현실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듀이는 과학적 반실재론에 크게 기여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살펴봅시다. 지식은 생물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 현실의 본질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과도한 이론도 필요 없죠.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통적인 형식 논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실험 논리, 즉 실험적 사고의 논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저서 제목은 《논리》인데 , 그 책에는 삼단논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논리란 실험적 사고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주 쉽고 간결한 책,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썼는데, 이 책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즉 사고방식을 설명합니다. 자, 당신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앞쪽 셋길에서 농장 마차가 본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첫 번째, 휴식.

두 번째, 핸들을 꺾으세요. 세 번째, 아예 길에서 벗어나세요. 네 번째, 두 손을 들고 에어백이 터지기를 바라세요.

아시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자마자 그중 하나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왜냐고요? 바로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를 활용하기 때문이죠. 네, 운전 경력이 꽤 오래됐고, 이전 경험들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급브레이크를 밟고 급하게 핸들을 꺾어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시도해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 면접을 보러 가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길은 숲을 지나 개울 위의 다리를 건너 마을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다리에 도착해 보니 다리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리가 끊겼어. 그는 어떻게 하지? 만약 되돌아가서 도로로 돌아가면 면접에 늦을 거야.

만약 그가 다른 다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상류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것도 가능성이 있죠. 그는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봅니다. '저 위쪽에 있는 다른 다리는 얼마나 멀리 있지? 거기까지 가는 데 얼마나 걸릴까? 그리고 거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데는 또 얼마나 걸릴까? 좋아,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는 거야.'

다른 방법은 개울을 멀리뛰기로 건너뛰는 거예요. 글썄, 그게 효과가 있을지 확신이 안 서네요. 그래서 개울가에서 몇 번 멀리뛰기 연습을 해봤어요. 얼마나 멀리 뛸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음, 어쨌든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실험적 검증도 필요합니다. 아이디어란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아이디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본질적인 대상을 이차적인 품질로 표현하거나 복제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아이디어는 가설입니다. 실행 계획이지만, 잠정적인 계획이죠.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문제가 해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란 효과가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게 할까요?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검증이란 무엇일까요? 검증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이 진실이 되는 것은 당신이 진흙투성이가 아닌, 제시간에 면접장에 도착했을 때뿐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적 사고. 이것이 그가 인식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확실성을 거부합니다.

그는 관찰자적 경험주의를 거부한다. 존 로크. 백지상태.

수동적으로 관념을 수용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는 주체-객체 이원론, 즉 마음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얻는다는 개념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아니요, 그는 그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생각과 행동을 분리하고, 이론과 실천을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의 유용성이 중요한 것이다. 진리란 관찰자와 무관하게 영원히 고정된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진리란 단순히 아이디어의 유용성, 즉 실용성을 의미한다.

자, 이게 바로 논리 인식론에 대한 적용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그가 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아시겠죠? 마음의 철학 말입니다. 음, 기능주의 심리학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 후에는 더 이상 할 말이 별로 없네요 .

명백히 그는 마음이나 영혼의 실체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면, 그는 심신 문제를 인정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마음의 철학과 관련하여 언급하려는 것은 우리가 정신 기능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개념들뿐입니다.

'정신적인'은 형용사입니다. 다시 말해, '정신적인'이라는 단어는 의식과 관련된 특정 생물학적 기능만을 지칭합니다. 가치 이론.

여기에는 그의 중요한 저서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중에는 비교적 초기 저서인 《가치 평가 이론》과 《인간 본성과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가치를 단순히 관념으로 간주합니다. 가치는 관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일까요? 가치는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문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상적인 결과. 다시 말해,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 농장 마차를 피하는 것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일단 상황이 닥치면 생물학적으로 피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 부여는 생물학적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듀이는 본질적으로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의 의미에서의 가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능동적으로 가치 부여되는 것의 의미에서의 가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가치란 무엇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없습니다 . 본질적으로 좋은 목적은 없습니다 .

아리스토텔레스가 선을 본질적으로 선한 것으로 정의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최고의 선은 다른 모든 선을 포괄합니다.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지, 다른 무언가를 위해 선한 것이 아닙니다.

듀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수단과 목적의 연속성입니다. 즉, 목적, 이상적인 것은 그 자체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달성되면, 그것은 새로운 반정립을 위한 정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적 그 자체는 단지 더 많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 자체로 목적, 본질적인 목적, 고정된 목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도달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것은 결코 특정 시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따라서 도덕적 절대 기준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선이란 없다. 가치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서 생겨난다. 가치는 생존을 위한 도구이다.

가치는 어떤 본질적인 의미에서 도덕적 선이 아닙니다. 가치는 비도덕적 선입니다. 생존은 비도덕적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한 문제 상황에서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결국 윤리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방법. 이것이 도구주의 윤리입니다. 그는 이것을 윤리에서의 도구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듀이의 윤리학 연구는 2~30년 전 상황 윤리학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상황 윤리학은 조셉 플레처라는 사람이 쓴 동명의 책을 통해 대중화되었는데, 이 사람은 이 지역에서 유명한 또 다른 플레처, 즉 하버드 대학교의 조셉 플레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황 윤리에 관한 책이었다. 모든 도덕적 상황은 개별적으로 다뤄야 하며, 일반적인 도덕 규칙은 없다고 주장 했다 .

정해진 지침은 없습니다. 보편적인 도덕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각 상황은 관련된 모든 사람 에게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

그는 몇 가지 요소를 더 추가했지만, 그것이 바로 실용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간단해요. 듀이의 이론에 실존주의적인 요소가 약간 가미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 그의 가치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교육이요? 네, 교육에 관해서는 그의 저서인 '민주주의와 교육' 을 살펴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는 교육의 기능을 삶을 배우는 것으로 봅니다.

삶을 배우는 것. 다시 말해, 교육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이죠.

배움이란 평생 곱씹어볼 거리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플라톤을 읽어라. 멜튼.

어쨌든, 학습은 고정된 가치관을 주입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가치관 같은 것도 아니고요.

아니요, 그건 학습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건 고전 교육의 관점이죠. 교육이란 오히려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학문 분야 중심적 이기보다는요 .

역사 지향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적인 지향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제 생각에 미국 교육은 듀이 이후로 고전 교육 전통과 삶의 기술을 제공하는 학습에 대한 그의 강조를 결합해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듀이의 우려 사항들을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으면서도 그의 사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정된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에 적용해 보자. 그리고 여기서 그의 중요한 책은 '공통의 얼굴'이다. 공통의 얼굴.

만약 고정된 진리나 가치관이 없다면, 종교는 단순히 특정한 진리와 가치관을 전달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적인 이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삶을 조정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같은 주제가 책 전체에 걸쳐 흐릅니다. 그는 특정 종교나 여러 종교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나 자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종교적'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태도란 공동체의 이상에 대한 충성심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의 이상에 대한 충성심.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라는 단어의 어원인데, 이는 '다시 묶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원하신다면, 재결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교는 관습적이거나 전통적인 종류의 무형의 이상에 대한 충성심을 통해 공동체 내의 개인들을 재결합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어떤 두 가지 이상에 국한된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해, 종교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수단으로서의 역할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이라는 단어는 어떤 존재의 이름이 아니라, 공동체가 인식하는 이상을 상징합니다. 신을 추구하는 것, 공동체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모든 역사적 종교의 가장 낮은 공통분모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모든 역사적 종교의 가장 낮은 공통분모 말입니다. 그는 특정 신념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태도를 지목하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는 공동체로서 실천되는 것이며, 그 신앙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듀이가 종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종교적 인본주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듀이는 1930년대에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며,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지속적인 과정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선언한 인본주의 선언문의 최초 서명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인간의 종교 문화는 자연 환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한 점진적인 발전의 산물입니다. 과학은 인간 가치에 대한 초자연적 또는 우주적 보장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듭니다.

종교적 인본주의는 인간 인격의 완전한 실현, 만족 등을 삶의 최종 목표로 여깁니다. 그리고 제가 인본주의 선언문을 가지고 있는데, 나가실 때 가져가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문서입니다. 70년대와 80년대의 세속적 인본주의는 이것의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인본주의는 자연주의적 종교입니다.

이해했어? 자연주의적 종교. 듀이가 말한 것처럼, 신은 이상을 상징하는 존재라는 뜻이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니테리언 교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자연주의적 인본주의입니다. 유니테리언교는 역사적으로 일종의 유신론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위일체론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유니테리언주의와 유니테리언 운동은 점점 더 특정한 가치관을 옹호하는 자연주의적 인본주의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표방하는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는 매우 훌륭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종교적 차원이 자연주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존 듀이에 대한 몇 가지 논평.